

한의학에서 바라본 향의 인지 과정과 인체 작용

엄지태 · 김경신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Recognition Process and Effects of Fragrance(aroma) in Oriental Medicine

Ji-Tae Uhm, Kyoung-Shin Kim, Byoung-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Fragrance(aroma) have many effects on body. Recently, aromatherapy was used to treat dementia, atopiddermatitis, alopecia areata, perineal disease, lymphatichydrops, and articullarrheumatism. And people are interested in physical and mental effects of aroma, especially in mental. People empirically have been known the effects of aroma on soul and used aroma in life from long ago. They have had a meditation and had a sacrificial rites burning incense. Scholars also burned incense when reading books or tasting tea. Until now, there is no physiological study about recognition process and effects of aroma on body, but only many clinical studies using aromatherapy. Fragrance(aroma) is different from smell and good flavors of herbs. And it goes through nose and has effects on body in harmony on So-mun(素問). Also flavors of herbs are spreaded ki of herbs and have many effects on body. Aroma coming through the nose is recognized by co-operation of five-viscera(五臟), especially heart and lung. The nose and pectoral qi(宗氣) are related with lung. The lung opens into the nose, reflect its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conditions. Pectoral qi(宗氣) is the combination of the essential qi derived from food with the air inhaled, stored in the chest, and serving as the dynamic force of blood circulation, respiration, voice, and bodily movements. Because of the heart-spirit(心神), Heart is the organ can recognize the aroma, although the nose is the first organ of receiving aroma. Five spirits(五神: ethereal soul(魂), spirit(神), ideation(意), corporeal soul(魄), will(志)) and seven emotions(七情: joy(喜), anger(怒), anxiety(憂), thought(思), sorrow(悲), fear(恐), fright(驚)) are rerated with five-viscera(五臟) and essence-spirit(精神) processing steps and express of emotions. And aroma effects on five-viscera(五臟). So aroma have many effects on body, especially mentally.

Key words : aromatherapy, five spirits, seven emotions

서 론

향은 정서와 감정 및 스트레스 등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향을 이용한 향기치료는 향기 나는 물질에서 정유를 추출한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가 대표적이다.

한의학에서도 향기는 한약재의 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氣味論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氣'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냄새(臭)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寒熱溫涼의 네 가지 약성

(四氣)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香臭로 보는 학설은 그다지 많이 응용되지 않고 주로 四氣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¹⁾. 이것은 분명 약재의 향취가 인체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의학 서적이나 자료에는 처방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와 관련된 원리나 작용에 관한 이론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인체가 향을 인지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향이 방향성 또는 휘발성 물질에 의해 코의 점막을 통해 흡입되어 대뇌변연계에 전달되면서 뇌파 등의 생체 신호의 변화를 초래하고 풍부한 감성도 유발시키며, 행동양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oo25@dju.ac.kr, · Tel : 042-280-2616

· 접수 : 2010/09/17 · 수정 : 2010/10/27 · 채택 : 2010/11/08

1) 임진석. 본초의 기에 대한 고찰. 서울, 대한원전외사학회 9:21, 1995.

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향이 인체에 있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생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²⁾. 그 중에서도 향의 정신적인 효과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心悸, 不安, 不眠 등 신경정신과 질환에 향기요법을 응용한 임상 연구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³⁾.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정신과 감정작용을 五神과 七情이라고 하고 이를 五臟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향을 이용한 임상치료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향이란 무엇이고, 인체에서 어떻게 향을 인지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향이 정신과 감정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에서 향의 의미와 인체에서 향을 인지하는 과정과 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五神과 七情으로 대표되는 精神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향

『說文解字』에는 ‘향’은 방향(芳)라 하였으며, 『春秋傳』에는 향이란 곡식에서 나는 향기라고 하였고, 『說文解字』註解에는 ‘곡식이 술이 되면서 나는 냄새가 향이다.’⁴⁾고 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음식(穀食)에서 나는 냄새를 향이라고 이해하였다.

‘향’은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냄새와는 구분하여 그 중에서 맡기 좋은 냄새를 지칭하기도 하였지만, 넓은 의미에서 ‘향’은 사물의 발산된 氣(香氣)를 지칭하는 것으로 臊焦香腥腐의 五臭로 대별되는 냄새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냄새(臭)’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다양한 냄새로서 臭氣, 臭味, 氣味, 氣息 등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⁵⁾. ‘향’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香氣, 香味, 香醇, 芳香, 清香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향은 두 가지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는데, 氣香은 코로 맡았을 때 향기로운 냄새이고, 香味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냄새로써 모든 냄새를 대표한다⁶⁾.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냄새가 좋은 沈香, 麝香, 白檀香 등의 천연물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예식을 할 때 태워서 향기를 내는 물건을 ‘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웹스터 사전은 어원적으로 향을 ‘정열이나 감정을 일으키는’의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 ‘encens’, ‘encensen’ 혹은 라틴어 incensus에서 비롯되었다⁷⁾고 정의하고 있어 향이 사람의 정서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학의 本草學에서도 맡을 수 있는 대부분의 냄새는 향의 범주에 속한다. 『本草衍義』에서 “氣라는 것은 香臭의 氣”⁸⁾라

고 설명하여 香氣가 있는 本草는 그 氣가 발산되는 것이고, 藥物의 氣가 많고 動的이기 때문에 發散되는 것이라고 하였고⁹⁾, 『本經疏證』에는 “모든 萬物은 하늘에서 氣를 받고 땅에서 味를 받는다. 색깔과 향기도 비록 萬物에서 나오지만, 氣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香氣는 氣에서 나오고 색깔은 맛에서 나온다. 이것들이 인체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받은 것은 陽으로 가고, 땅에서 얻은 것은 陰으로 간다.”¹⁰⁾고 언급하여 本草 또한 하늘과 땅의 영향을 받은 만물의 일부로써, 本草의 香臭가 인체에 들어가서 氣의 흐름을 조절하는 特性¹¹⁾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神農本草經』에서 “香者, 氣之正, 正氣盛則除邪辟穢也.”라고 하고, 『山海經·西山經』에서 “薰草, 麻葉而方莖, 赤華而黑實, 臭如藤蕪, 佩之可以已癘”으로 볼 때, 방향성 약물의 향을 이용하여 인체의 正氣를 고무시켜서 穢濁之邪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¹²⁾.

모든 본초는 향(氣)을 갖고 있지만 휘발성 향이 강한 본초를 ‘향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芳香性 本草로 분류한다. 따라서 향은 事物의 氣化로 인해 발휘되는 것으로 향이 짙은 事物(또는 本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構造를 갖고 있는 사물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이해되며, 다만 사람이 향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향이 진한 것이며, 향을 맡을 수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향이 엷은 차이가 있을 뿐, 향은 사물의 氣化作用에 의해 나타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本草의 氣味論 등을 통해 이해하면 모든 本草는 氣化作用에 의한 휘발성 물질의 多少에 의해 향의 강약이 정해지는 것이다.

2. 한의학과 향

한의학에서 향에 관한 대표적인 언급은 『素問·六節臟象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素問·六節臟象論』에서 “五氣는 하늘에서 연유해서 코를 통해 心肺로 들어가서 위로 五色을 밝혀주고 聲音을 또렷하게 밝혀주고, 腸胃를 통해 몸에 들어온 五味가 이 五氣를 길러주고 그 五氣가 조화로워지면 津液이 왕성해지고 神이 충만해지는 것”¹³⁾이라고 언급하여 인체에서 향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五氣에 관해 후대의 註家들을 보면 초기에는 향(五臭)으로 주로 이해하였으나 후대로 가면서 五氣를 風暑濕燥寒의 五氣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王冰은 五氣를 臊焦香腥腐의 五臭로 인식하였다. 그는 주석

2) 한은정. Pubmed 검색을 통해 살펴본 Aromatherapy의 임상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대한안면비인후피부과 학술지 15(1):276-284, 2002.
3) 이상룡. 香氣療法을 시행한 神經精神科患者 52예에 대한 臨床의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1):901-907, 1998.
4) 허신. 說文解字註. 서울, 大星文化社, p 736, 1990.
5) <http://baike.baidu.com/view/354646.htm>
6) <http://baike.baidu.com/view/112378.htm>
7)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cense>

8) 寇宗奭. 本草衍義. 上海,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p 234, 1990. “凡稱氣者, 即是香臭之氣”
9)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77-103, 2006.
10) 鄒澍.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p 331, 2001. “凡物氣稟乎天 味稟乎地 色與香則雖出於物 亦不能不囿於氣味 故香麗於氣 色麗於味. 其入於人身 則得於天者行陽 得於地者行陰 所謂從其類也.”
11)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77-103, 2006.
12) 李丙旭. 外臺秘要的 熏法과 芳香療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8(3):116-125, 2005.
13)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0, 2001. “素問·六節臟象論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에서 “하늘이 五氣로써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臊氣가 肝에 모이고, 焦氣는 心에 모이고, 香氣는 脾에 모이고, 腥氣는 肺에 모이고, 腐氣는 腎에 모이는 것을 이른다.”¹⁴⁾고 하였고, 또한 張景岳도 五氣를 臊氣, 焦氣, 香氣, 腥氣, 腐氣의 5종류의 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는 주석에서 “하늘이 五氣로써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臊氣가 肝에 들어가고, 焦氣는 心에 들어가고, 香氣는 脾에 들어가고, 腥氣는 肺에 들어가고, 腐氣는 腎에 들어감을 이른다.”¹⁵⁾고 하였다.

그러나 明代의 吳崑은 五氣를 風暑濕燥寒으로 인식하였다. “五氣는 한갓 臊焦香腥腐만은 아니다. 이들은 바로 地氣이지 天氣가 아니다. 대개 風氣가 肝에 들어가고, 暑氣는 心에 들어가고, 濕氣는 脾에 들어가고, 燥氣는 肺에 들어가고, 寒氣는 腎에 들어감을 이른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서 傷害되지 않으면 사람을 길러 줄 수 있다. 사람이 氣와 사귀는 중에 코로 받아들여서 五臟을 길러주니 이것이 ‘하늘이 五氣로써 사람을 먹여줌’이다.”고 주석을 달았다. 또한 청대의 吳謙도 五氣를 風暑濕燥寒의 다섯 가지의 五氣로 인식하였는데, 그는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 “하늘에는 다섯 가지 기운(五氣)이 있고, 코로 들어가 사람을 기르고, 오장에 저장된다.”고 하였고, 주석에서 “하늘은 風暑濕燥寒의 다섯 가지 기운으로 사람을 기르며, 코를 통해 들어간다.”¹⁶⁾고 설명했는데, 이 내용들은 향이 인체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발생하는 작용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즉 王冰과 張景岳의 五氣를 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인체가 감각 인식하는 외부 사물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 吳崑과 吳謙의 風暑濕燥寒의 다섯 가지 기운으로 보는 것은 인체 내부로 향이 들어갔을 때 인체에 작용하는 결과를 위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향(五氣)은 코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서 조화로우려면, 얼굴빛도 좋아지고, 음성이 낭랑해지고, 津液을 왕성하게 하여, 神이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⁷⁾. 또한 本草에서 말할 수 있는 香氣는 本草가 가지고 있는 藥性的 氣가 발산된 것으로써 인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작용하고 특히 정신적인 면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3. 한의학에서 쉰의 인식(心的 역할)

기본적으로 인체의 五臟六腑와 經絡의 작용결과로서 향을 인식하게 되는데, 鼻에서 감각한 뒤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臟腑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肺와 心이다. 인체에서 향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위는 鼻인데, 이는 肺의 外候이고 肺之竅가

된다. 즉, 肺의 상태가 鼻에서 발현되며, 또한 『靈樞·脈度』에 “肺氣가 코에 통하고, 肺가 조화로우면 코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¹⁸⁾고 언급한 것처럼 肺기능이 충만하면 鼻의 기능도 원활해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肺는 氣를 主하여 天氣를 호흡하고, 그러한 과정에 냄새 또한 코를 통해 들어와서 코가 냄새를 알게 된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 “宗氣가 위로 코로 나가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¹⁹⁾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宗氣가 外氣를 호흡하는 가운데 향을 맡는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宗氣 또한 心肺의 작용과 관련이 깊다. 肺가 조화로우면 肺氣가 왕성하고 宗氣도 충족하여 호흡을 잘 도와주고, 코에도 氣가 충족되어 코가 心神이 주지하는데로 후각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이처럼 냄새 맡는 것이 鼻가 담당하는 것이고, 鼻가 肺의 外竅이어서 냄새 맡는 기능이 肺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呼吸之間에 들어온 ‘향’을 지각하고 판별하는 것은 心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心은 君主之官으로 神明이 나온다고 하였고, 一身, 五臟六腑를 맡아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하고, 精神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하여, 心이 인간의 정신활동으로서의 神明을 주관하는 곳이다. 또한 心에 藏하여진 神은 인간의 정신사유활동을 총괄하며, 나머지 臟에 所藏되어 있는 魂·魄·意·志도 모두 神의 分化象으로서 神이 통솔하고 있다고 하였다²¹⁾. 즉, 인체에서의 모든 생명활동은 神의 활동이고, 냄새를 맡고 판별하는 것 또한 心이 藏하고 있는 神이 주재하는 것이다.

『醫學入門』에 “肝主色 …… 心主臭 …… 脾主味 …… 肺主聲 …… 腎主液”이라고 하여 사람이 五感으로 느끼는 외부의 자극을 五行과 五臟에 분류를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心神이 色, 味, 聲 등 모든 感覺刺戟을 받아들이고 판별하는데 모두 관여하고 있지만, 특히 心은 쉰을 판별하는데 주요한 臟腑임이 강조되고 있다. 『難經·四十難』에서 “心主臭, 故令鼻能知香臭.”²²⁾라고 하고, 『醫學入門·卷四』에 “鼻竅於肺, 而能知香臭, 心也.”²³⁾라고 언급하여 ‘心主臭’²⁴⁾의 의미는 코의 후각기능이 향취를 인식하는 것이 ‘心的 작용’이란 것이다. 즉, 心에 기혈이 왕성하면 心神이 맑고, 코의 후각신경도 그 영향을 받아, 후각이 예민해져서 냄새를 잘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더불어 『醫學輯要』에서는 “事件結末의 徵兆와 事件進行吉凶의 徵兆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냄새로 判斷하는 것이니 냄새에 腐, 腥, 香, 焦, 臊의 五種 以外에 하늘의 神明한 자취를 더듬고 鬼神의 神秘한 行蹟을 探知하는 超人間的 냄새로 事件의 顛末과 將來의 興亡을 判斷하므로 냄새는 무엇이든지 잘 맡는 獨特한 技能을 지닌 鼻孔

14)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0, 2001. “天以五氣食人者, 臊氣湊肝, 焦氣湊心, 香氣湊脾, 腥氣湊肺, 腐氣湊腎也 …… 清陽化氣而上爲天 …… 故天食人以氣.”
 15)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0, 2001. “張景岳注: 天以五氣食人者, 臊氣入肝, 焦氣入心, 香氣入脾, 腥氣入肺, 腐氣入腎也.”
 16) 윤장열 외 편역. 吳謙.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pp 12-13, 2001. “天有五氣, 食人入鼻, 藏於五藏. 天以風、暑、濕、燥、寒之五氣食人, 從鼻而入.”
 17)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0, 2001. “素問·六節藏象論」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18)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488, 2002. “靈樞·脈度」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
 19)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119, 2002. “靈樞·邪氣藏府病形」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20)王永欽.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65, 2001.
 21) 최성욱, 강정수. 五神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5(3):367-372, 2001.
 22) 윤장열.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p 502, 2007.
 23)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pp 160-161, 1999.
 24)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p 143, 1999.
 25) 王永欽.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 60-61, 2001.

을 面部의 中央, 눈 바로 밑에 配置하여 눈과 귀가 발견한 事物 自體의 냄새를 맡아서 善惡을 미리 判斷하게 하였다.”²⁶⁾고 하여 香은 단순히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감각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萬物이 작용하고 氣化되어 발현되는 향을 통해 心神이 보다 폭 넓은 방법으로 外部世界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萬物의 幾微와 正조를 느낄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鼻가 냄새를 맡는 기능과 관련 깊은 장부가 心(心主臭)으로 여기는 것을 여러 醫家들은 體用 및 金의 長生地로 설명했다. 『難經·四十難』에 “肺는 西方의 金이고 金은 巳에서 生하고, 巳는 南方의 火이다. 火는 心에 속하고, 心은 냄새(臭)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코가 향취를 알 수 있는 것이다.”²⁷⁾고 하였으며, 『脾胃論·五臟之氣交變論』에서도 “무릇 三焦의 竅는 喉로 열려서 코로 나간다. 코는 肺의 竅인데 이를 體라 하며,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用이라 한다. 心은 五臭를 主하고 코는 이것을 맡는다. 대개 九竅의 쓰임은 長生의 기운을 稟賦받은 것이다. 心은 酉에서 長生하고, 酉는 肺이다. 그러므로 냄새를 아는 것이 心이 쓰는 바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²⁸⁾고 하여 냄새를 맡고 판단할 때, 心이 주체가 되어 작용하고, 코는 心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心神, 肺氣와 후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神이 밝고, 氣가 왕성하면 후각도 영민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心이 虛해 지거나, 神이 흐리고 정신을 놓아서 후각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肺氣가 약하고, 心脈瘀疔, 肺實氣壅하거나, 코에 邪氣가 침입하면 후각기능에 이상을 가져와서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²⁹⁾. 『東垣試效方·券五·鼻門·鼻不聞香臭論』에서는 “대개 外竅로 이야기 할 때는 肺이다. 用으로 이야기 할 때는 心이다. 衛氣가 지키지 못하여 寒邪가 얼굴에 침입하면 코도 역시 그에 感受하여 心이 쓸 수 없어 냄새를 맡지 못한다.”³⁰⁾고 하였다. 그래서 임상에서 후각이상 증상의 약물 치료는 芳香醒神의 효과가 있는 약제인 石菖蒲, 麝香, 冰片, 樟腦, 辛黃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³¹⁾.

이와 같은 향의 인식 과정에서 인체 五臟의 작용 결과로서 냄새를 인식하게 되며,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부는 心肺이다. 鼻는 肺의 外候이고, 肺之竅로써 향을 처음 받아들이는 곳이다. 또한 宗氣가 위로 코로 나가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肺와 관련 깊은 내용이다. 鼻는 향을 처음 받아들이는 곳이지만, 향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心에 藏하고 있는 心神의 작용 덕분인 것이며, 이를 ‘心主臭’라고 말하는 것이다.

4. 香의 作用(精神과 五臟을 중심으로)

한의학에서는 香이 精神과 관련이 깊다는 문헌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素問·六節藏象論』에 “五氣는 하늘에서 연유해서 코를 통해 心肺로 들어가서 …… 五氣가 조화로워지면 津液이 왕성해지고 神이 충만해지는 것”³²⁾이라고 하여 향은 코를 통해 몸에 들어가서 神을 충만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瘡瘍全書』에 “鼻孔은 肺의 竅이고, 그 氣는 위로 腦에 통한다.”³³⁾고 언급하였고, 『景岳全書·論證』에서도 “鼻는 肺의 竅이고 또한 天牝이라고 하는데 宗氣의 길이지만 실제로는 心肺의 門戶이다. …… 山根이상은 太陽經, 督脈과 연결되어 腦에 통한다.”³⁴⁾고 하여 냄새를 맡는 鼻와 腦, 心神과의 연관성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향과 정신과의 상관성을 알 수 있다. 道家 서적인 『黃庭經』에서도 향과 정신과의 상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髮腦眼鼻耳舌齒는 皆一面之神이니 分之雖七이나 然皆宗乎腦之泥丸”³⁵⁾라고 하여 鼻를 통해 들어온 향이 一身을 주재하는 元神이 거처하는 泥丸宮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腦나 泥丸宮은 한의학에서 정신작용의 발현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작용은 五臟에서의 五神과 七情의 작용으로 발현되게 된다.

1) 한의학에서의 정신(五神과 七情)

향은 인체에 들어가서 여러 방면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작용함을 인지하였다. 이것은 향이 다른 五感에 비해 심장의 주관이며 정신적 氣化 영역에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정신활동은 크게 魂神意魄志의 五神과 怒喜憂思悲恐驚의 七情으로 대별되며, 이는 心이 주관하지만 各 五臟의 작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五臟의 상호협조가 원활한 정신작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³⁶⁾.

『黃帝內經』에서는 魂神意魄志의 무형의 정신활동을 실질장기인 五臟과 관련지어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를 五臟神이라 하였다³⁷⁾. 『素問·宣明五氣論』에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³⁸⁾이라 하여, 神이 心에서 藏하지만 작용면에서 魂神意魄志의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였고, 이를 각각 五臟에 배속시켰다.

이것은 五神 모두 心에서 통합되고 주관되기 때문에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生存의 근본이 心이요 神의 변화됨이 心이라 하였으며 또한 神이 生體에 깃들여 있는 곳이 心이라 하였다³⁹⁾. 즉, 神은 모든 생명현상활동의 물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일

26) 송점식. 醫學輯要. 대전, 주민출판사, p 231, 2006.

27) 윤창렬.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p 832, 2007. “肺者, 西方金也, 金生于巳, 巳者南方火, 火者心, 心主臭, 故令鼻知香臭”

28) 李東垣. 脾胃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4, 2005. “『脾胃論·五臟之氣交變論』夫三焦之竅開于喉, 出于鼻. 鼻乃肺之竅, 此體也; 其聞香臭者, 用也. 心主五臭, 舍于鼻. 蓋九竅之用, 皆稟長生爲近. 心, 長生于 酉, 酉者肺, 故知鼻爲心之所用, 而聞香臭也.”

29) 王永欽.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90, 2001.

30) 李東垣. 東垣試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31, 2001. “『東垣試效方·券五·鼻門·鼻不聞香臭論』蓋以竅言之, 肺也; 以用言之, 心也. 因衛氣失守, 寒邪客于面, 鼻亦受之, 心不能爲用, 而不聞香臭.”

31) 王永欽.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60-61, 2001.

32)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0, 2001. “『素問·六節藏象論』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33) “鼻孔爲肺之竅 其氣上通于腦”

34) 홍원식, 張景岳. 國譯景岳全書. 서울, 一中社, p 648, 1992. “『景岳全書·論證』鼻爲肺竅 又曰元牝 乃宗氣之道而實心肺之門戶 …… 自山根以上則連太陽督脈 以通于腦”

35) 이병서, 김용진, 윤창렬. 황정경(黃庭經)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5(1):27-45, 1996.

36) 김원희 외. 東醫生理學. 서울, 부림인쇄기획, p 395, 1993.

37) 尹祥熙, 李相龍. 五神의 起源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東醫神精神科學會誌 5(1):33-39, 1994.

38)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552, 2001.

39)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224, 2001. “『素

어는 生命의 존재 의미로 쓰이며, 생명활동을 추진하는 心臟活動이고, 感覺와 知覺의 모든 精神活動을 의미한다⁴⁰.

韓醫學에서는 心을 神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神의 主宰下에 人體의 生理的, 精神의 기능 활동을 주관하는 生命의 中樞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人體의 다른 어떤 곳보다 心을 중요시 하였으며, 心의 安靜여부가 인체활동의 중요한 관건임을 암시하였다⁴¹. 그래서 『靈樞·大惑論篇』에는 “心臟은 항상 神氣가 깃들이는 곳이고 그 心臟이 혼란됨으로써 神氣가 혼란되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⁴²고 하며 心이 주요함을 강조하였다.

現代醫學으로도 心臟과 精神의 관계에 있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恐怖, 憤怒, 不安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狹心症이나 不整脈, 鬱血性心不全 등의 心臟疾患이 많이 발생한다⁴³는 것을 보면 心과 정신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心은 생명활동의 기능과 정신활동의 주체가 되는 臟器로서 정서적 발현의 주체가 되는 心이 자극에 반응하는 氣로써 五神의 활동을 주재하는 것이며, 五神으로 부터 思惟, 意識, 情緒, 感覺活動 등의 기능을 수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한다. 이것은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것은 心으로 神의 작용은 五臟 기능으로써 생명력을 주관하는 思惟活動를 이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七情은 心의 外部刺戟에 의한 일곱 가지 反應形態로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氣이다. 七情의 발현은 외부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데, 이러한 感情은 生命體와 직결되어 있어서 感情의 變化는 그대로 生理的 變化로 나타나게 된다. 감정의 과도한 변동이 過極하면 氣 또한 과도하게 움직임이 있거나 정체되며, 五臟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것을 ‘七情傷’이라고 하며 情志의 변화가 精神身體의 병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人體에는 五臟이 있어 五氣를 化生하는데 五氣는 바로 喜, 怒, 悲, 憂, 恐이라는 五志를 생기게 한다⁴⁵고 했으며, 『靈樞·口問』에서는 疾病의 발생에 대하여 생체자극의 외적요소인 六氣와 생체내적 요소인 七情이 모두 五臟과 연결되어 생리 및 병리변화를 일으킨다⁴⁶고 언급하였다. 즉 五臟이 七情간의 관계가 깊어서 七情의 감정변화가 지나치면 五臟을 해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지나친 七情의 발현을 보고 五臟機能의 저하나 과다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적당한 七情發動은 臟腑間의 相生作用을 촉진시켜 각기 해

당 臟腑에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⁷. 그러나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너무 화를 내면 肝을 상하게 되고, 너무 기뻐하면 心을 상하게 되고, 생각을 너무 하면 脾를 상하게 되고, 너무 슬퍼하면 肺를 상하게 되고, 너무 두려워하면 腎을 상하게 된다”⁴⁸고 하며 외부환경이나 각종의 조건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한 情志가 정상 생리조절수준을 넘어 극렬할 때, 또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병리적 상태가 되어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⁴⁹. 또한 『素問·舉通論』에서는 七情의 便乘이 체내의 정상상태에 대하여 不利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의 편향성이 五臟機能에 영향을 주어 원활한 생리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⁵⁰. 이는 韓醫學에서 精神活動의 범주 중 감정의 변화는 七情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氣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하였다⁵¹.

2) 五臟에 대한 향의 작용

한의학에서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五臟과 향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초기에는 향(五臭)을 단순히 五行과 연관하여 인식하였지만, 후대로 갈수록 五臟이나 五臟 五腑 經絡 및 本草의 歸經으로 확대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五臭를 五行과 臟腑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東方은 青色이고, 肝으로 들어가 통하고, …… 그 종류는 草木이고, …… 그 냄새는 누린내다. 南方은 赤色이고, 心으로 들어가 통하고, …… 그 종류는 火이고, …… 그 냄새는 탄내다. 中央은 黃色이고, 脾로 들어가 통하고, …… 그 종류는 土이고, …… 그 냄새는 향내다. 西方은 白色이고, 肺로 들어가 통하고, …… 그 종류는 金이고, …… 그 냄새는 비린내다. 北方은 黑色이고, 腎으로 들어가 통하고, …… 그 종류는 水이고, …… 그 냄새는 썩은 내다.”⁵²라고 하여 5가지 향이 각각 五行에 배속되고, 또한 오행에 배속된 五臟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類經』에서는 臭라는 것이 氣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五臭(五氣)의 연원을 五行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臊臭는 木氣가 변화한 것이고, …… 焦臭는 火氣가 변화한 것이고, …… 香臭는 土氣가 변화한 것이고, …… 腥臭는 金氣가 변화한 것이고, …… 腐臭는 水氣가 변화한 것이다”⁵³고 하여 향이 五行

問·六節臟象論」心者生之本 神之處也”

40) 金景先. 韓醫學의 精神과 佛敎 唯識學 中心法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5(5):650-658, 2001.

41)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1220, 2002. “『靈樞·邪客篇』心者, 五臟六腑之太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42)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1405, 2002. “『靈樞·大惑論』心者, 神之舍也”

43) 鄭壹千. 心臟癱瘓. 서울, 전과과학사, pp 192-205, 1985.

44) 林鍾國. 七情과 神經症. 大韓韓醫學會誌 29:20-24, 1969.

45)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上. 서울, 의성당, p 118, 2001. “『素問·陰陽應象大論』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怒哀憂恐”

46)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p 365, 2002. “『靈樞·口問』夫百病之始生也 皆生于風雨寒暑清濕喜怒 喜怒不節則傷臟”

47) 嚴泰植. 七情傷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5(1):145-146, 1984.

48)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上. 서울, 의성당, p 124, 2001. “『素問·陰陽應象大論』喜傷心, 怒傷肝, 思傷脾, 悲傷肺, 恐傷腎”

49) 고태준, 이상룡. stress 현상과 관련된 諸氣證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8(2):317-327, 2000.

50) 黃義完. 心身症. 서울, 杏林出版社, p 33, 1984.

51) 李忠烈. 精神活動과 氣의 相關性에 關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p 17, 1985.

52) 金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上. 서울, 의성당, p 92, 2001. “『素問·金匱真言論』東方青色, 入通於肝 …… 其類草木 …… 其臭臊. 南方赤色, 入通於心 …… 其類火 …… 其臭焦. 中央黃色, 入通於脾 …… 其類土 …… 其臭香. 西方白色, 入通於肺 …… 其類金 …… 其臭腥. 北方黑色, 入通於腎 …… 其類水 …… 其臭腐.”

53) 張介賓. 類經上. 서울, 범인문화사, pp 68-71, 2006. “其臭臊. 臭氣之總名也 臊爲木氣所化 禮月令曰 其臭羶 羶與臊類 ○臭 許救 尺救 二切 臊音騷. 其臭焦. 焦爲火氣所化. 其數五 其臭香. 香爲土氣所化. 其臭腥. 腥爲金氣所化. 其臭腐. 腐爲水氣所化 禮月令云其臭朽 朽與腐類.”

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本草備要』와 『本草便讀』에서도 本草의 五色과 五味와 五臭와 五臟五腑 經絡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清代 張秉成의 저서인 『本草便讀』에서는 “무릇 약을 쓸 때는 약의 五色, 五臭를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 臊臭는 肝으로 들어가고, 焦臭는 心으로 들어가고, 香臭는 脾로 들어가고, 腥臭는 肺로 들어가고, 腐臭는 腎으로 들어간다.”⁵⁴⁾고 언급하여, 향이 五臟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이러한 작용은 五臟의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本草備要』에서는 “무릇 藥의 色이 青色이거나, 맛이 酸味하거나, 냄새가 臊臭이면, 藥性이 木에 속하고, 모두 足厥陰肝, 足少陽膽經으로 들어간다. 色이 赤色이거나, 맛이 苦味이거나, 냄새가 焦臭이면, 藥性이 火에 속하고, 모두 手少陰心, 手太陽小腸經으로 들어간다. 色이 黃色이거나, 맛이 甘味이거나, 냄새가 香臭이면, 藥性이 土에 속하고, 모두 足太陰脾, 足陽明胃經으로 들어간다. 色이 白色이거나, 맛이 辛味이거나, 냄새가 腥臭이면, 藥性이 金에 속하고, 모두 手太陰肺, 手陽明大腸經으로 들어간다. 色이 黑色이거나, 맛이 鹹味이거나, 냄새가 腐臭이면, 藥性이 水에 속하고, 모두 足少陰腎, 足太陽膀胱經으로 들어간다.”⁵⁵⁾고 언급하여, 다섯 가지 향으로 각각 약성을 유추할 수 있고, 각각 臟腑經絡에 들어가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本草의 향이 五臟뿐만 아니라 六腑와 經絡등 인체의 광범위한 부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표 1. 향의 五臟에 작용

	木	火	土	金	水
黃帝內經	東方青色, 入通於肝	南方赤色, 入通於心	中央黃色, 入通於脾	西方白色, 入通於肺	北方黑色, 入通於腎
金匱真言論	其類草木	其類火	其類土	其類金	其類水
	其臭臊	其臭焦	其臭香	其臭腥	其臭腐
類經	其臭臊. 臊爲木氣所化 禮月令曰 其臭糞 糞與臊類 ○臭 許救 尺救二切 臊音騷	其臭焦. 焦爲火氣所化. 其數五	其臭香. 香爲土氣所化	其臭腥. 腥爲金氣所化	其臭腐. 腐爲水氣所化 禮月令云其臭朽 朽與腐類
本草便讀	臊入肝	焦入心	香入脾	腥入肺	腐入腎
本草備要	凡藥色青, 味酸, 氣臊, 性屬木者, 皆入足厥陰肝, 足少陽胆經	色赤, 味苦, 氣焦, 性屬火者, 皆入手少陰心, 手太陽小腸經	色黃, 味甘, 氣香, 性屬土者, 皆入足太陰脾, 足陽明胃經	色白, 味辛, 氣腥, 性屬金者, 皆入手太陰肺, 手陽明大腸經	色黑, 味鹹, 氣腐, 性屬水者, 皆入足少陰腎, 足太陽膀胱經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萬物이 宇宙의 五運(木火土金水)의

영향을 받아 각각 오행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本草 또한 하늘에서 다섯 가지 기운을 받아, 다섯 종류의 향을 발산한다고 보았다. 향이 인체에 들어가 五臟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五臟뿐만 아니라 六腑 및 經絡 등 몸 전체에서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하게 된다.

향은 五臟·六腑·經絡의 相互作用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偏勝된 五神과 七情의 작용을 조화롭게 하여 五神이 부조화하거나 七情의 치우침으로 인한 精神感情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과를 갖는다.

고찰

本草의 芳香性은 대부분 香의 범주에 속하며, 臊焦香聲腐(木火土金水)인 五臭 중에서 香은 土에 속한다. 香은 냄새 중에서도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맡았을 때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脾土는 균형을 유지하고 氣機升降 조절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唐宗海는 木香에 대해, “木香之理氣 以其香氣歸脾 而味兼微辛 又得木氣之溫 力能疏土 且木香莖五枝五葉五節 皆合脾土之數 故能理脾也”라고 하여 香이 脾土에 작용하는 것을 論하였다⁵⁶⁾. 이것은 본초의 芳香性이 脾胃의 氣機運化작용을 도울 수 있음을 뜻하며 이를 통해 脾胃가 다른 四臟의 氣機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七情으로 인한 偏勝된 氣機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한의학에 있어서 香은 五臟六腑 중에서 정신활동과 관계있는 五臟과 관련이 있고, 특히 정신을 총괄하는 心神과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五臟에서 외부자극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七情으로 나타나고, 七情의 변화에는 氣機의 변화가 따른다. 心이 五臟의 주인이고 精神을 총괄한다는데서 중요하다면 脾胃는 인체에서 外物을 받아들이는 장기이자 香의 氣機조절작용의 측면에서 몸 전체의 氣機升降작용을 조절하는 장부로서 心이 오장의 주인으로써 역할을 보조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魂神意魄志의 五神과 喜·怒·憂·思·悲·恐·驚의 七情은 각각 五行과 五臟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本草의 芳香性이 脾土에 영향을 주어 조절과 통섭작용을 통해 五神과 七情을 조화롭게 하여 氣機變化의 균형을 이루어 五神과 七情의 편향되지 않게 잘 조절하고, 편향되었던 氣機가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心이 五臟의 주인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素問·舉痛論』에서 언급된 ‘怒則氣上, 喜則氣緩, 思則氣結, 憂則氣鬱, 悲則氣消, 恐則氣下, 驚則氣亂’⁵⁷⁾이 이러한 氣機의 변화이며, 이것은 외부반응에 의한 일시적인 氣機의 변화로써 감정이 조절되면 氣機는 곧 균형을 되찾게 된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香의 의미와 香이 五臟에 영향을 주고 특히 心脾에 영향을 주어 정신활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향기치료에 사용하는 芳香本草가 香으로써 五臟六腑에 작용하는 자세한 효능과 작용 등을 본초학적

54) 張秉成. 本草便讀. 北京, 學苑, p 163, 2003. “凡用藥當明其五色五臭. ……臊入肝, 焦入心, 香入脾, 腥入肺, 腐入腎”

55) 汪昂.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p 2, 2007. “凡藥色青、味酸、氣臊、性屬木者, 皆入足厥陰肝、足少陽胆經; 色赤、味苦、氣焦、性屬火者, 皆入手少陰心、手太陽小腸經; 色黃、味甘、氣香、性屬土者, 皆入足太陰脾、足陽明胃經; 色白、味辛、氣腥、性屬金者, 皆入手太陰肺、手陽明大腸經; 色黑、味鹹、氣腐、性屬水者, 皆入足少陰腎、足太陽膀胱經.”

56)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 77-103, 2006.

57)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p 365, 2001.

으로 정리하여야 자유롭게 본초를 조합하여 치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향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 관점에서 이해되는 향의 개념과 인체의 향 인식과정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향이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를 포괄하는 사물의 발산된 기(香氣)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향의 多少는 事物마다 다르지만 萬物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감각적인 특성중 하나로서 한의학에서는 향이 몸에 들어가서 五臟을 조화롭게 한다고 인식하였다.

한의학에서 향을 인지하는 통로는 宗氣의 呼吸作用에 의해서 鼻를 통해 몸에 들어오게 된다. 鼻는 肺의 外竅이어서 香은 肺로 흡수되지만 이렇게 들어온 향을 판별하는 것은 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인체의 모든 정신활동과 감각작용은 心神이 담당하는 것이고, 향을 판별하는 것 또한 心神의 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心主臭'라고 나타내었다.

本草에서도 저마다 향의 강약을 통해 藥性的의 氣가 발산되는 것으로 臊焦香腥腐의 五臭로 대별되는 本草의 芳香性이 각각 몸의 五臟六腑와 經絡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五臟과 心神의 정신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심리적 영향을 주어 精神이 안정될 수 있으며, 정신과 감정의 偏勝으로 인한 不安, 氣鬱, 不眠, 스트레스 등 신경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향을 응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홍원식, 張景岳. 國譯景岳全書. 서울, 一中社, 1992.
2. 주조병. 傳統香療法精華.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9.
3. 허신. 說文解字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0.
4. 朱震亨. 本草衍義. 上海,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1990.
5. 鄒澍.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6. 송점식. 醫學輯要. 대전, 주민출판사, 2006.
7. 張介賓. 類經 上. 서울, 범인문화사, 2006.
8. 張秉成. 本草便讀. 北京, 學苑, 2003.
9. 汪昂. 本草備要.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2007.
10.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11. 김달호. 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의성당, 2001.

12. 윤창열 외 편역. 吳謙.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13. 鄭壹千. 心臟痲痺. 서울, 전파과학사, 1985.
14. 김원희 외. 東醫生理學. 서울, 부름인쇄기획, 1993.
15. 李東垣. 東垣試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16. 李東垣. 脾胃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17.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1999.
18. 윤창열.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19. 黃義完. 心身症. 서울, 杏林出版社, 1984.
20. 王永欽.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21. 尹祥熙, 李相龍. 五神의 起源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5(1):33-39, 1994.
22. 金景先. 韓醫學의 精神과 佛教 唯識學 中心法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5(5):650-658, 2001.
23. 林鍾國. 七情과 神經症. 大韓韓醫學會誌 29: 20-24, 1969.
24. 嚴泰植. 七情傷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5(1):145-146, 1984.
25. 고대준, 이상룡. stress 현상과 관련된 諸氣證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8(2):317-327, 2000.
26. 최성욱, 강정수. 五神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5(3):367-372, 2001.
27. 李忠烈. 精神活動과 氣의 相關性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1985.
28. 한은정. Pubmed 검색을 통해 살펴본 Aromatherapy의 임상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 학술지 15(1):276-284, 2002.
29. 이상룡. 향기요법을 시행한 신경정신과 환자 52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1):901-907, 1998.
30.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 77-103, 2006.
31. 李丙旭. 外臺秘要의 熏法과 芳香療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18(3):116-125, 2005.
32. 이병서, 김용진, 윤창열. 황정경(黃庭經)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5(1):27-45, 1996.
33. 안상우. 七情學說천석. 제3의학 1(2):39-55, 1996.
34. Ehrlichman, H.& Bastone, L., The use of odour in the study of emotion. The psychology and biology of perfume:143-159, 1992.
35. <http://baike.baidu.com/view/354646.htm>
36. <http://baike.baidu.com/view/112378.htm>
37.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cense>